



잘못된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른소리하자
새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2026년 2월 27일 (금)

위원장 장재형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 전화 053)803-5840 / 전송 053)220-5841 / 메일 jang70@korea.kr

갈팡질팡하는 대구시의회는 각성하라!!! 시의회가 이벤트 회사인가!!!

갈팡질팡하는 대구시의회는 각성하라!!!

대구시의회는 이벤트 회사 차렸나!!!

대구시의회는 지난 2월 23일(월) 오전 11시, 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작당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나, 권한과 재정이 비어 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통합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낸 이유를 들어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된 뒤, 시의회가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 보류의 '단초'로 지목되며 책임론이 확산하자,

오늘(27일) “권한 없는 빈 껍데기”라고 주장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시의회가 불과 나흘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갈팡질팡 아주 유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240만 대구 시민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이고, 시의회가 이벤트 회사 차렸나!!!

그리고 지난 1월 20일 정부에서 전국 각지의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지방 분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려하며 '통합 특별시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하면서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알맹이 빠진 20조란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선 행정통합출범에 필요한 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있어 공무원 조직 내부 여론을 한 번이나 물어 보았는가!!! 대구시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두라!!!

시민 의견과 공무원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당연히 무산되어야 한다!!!